



**[로스쿨 소식]**

**법률신문 후원 제6회 가인법정변론대회 개최**

-민사부문 이화여대·형사부문 부산대 로스쿨 우승

-개인 최우수상 이현주(전남대)·김도희(한양대)

이화여대와 부산대 로스쿨팀이 제6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6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141개팀, 423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민사 36개팀, 형사 36개팀이 본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팀씩 12팀이 변론 실력을 겨뤘다.

이화여대 로스쿨팀(김은아·강현주·김민주씨)은 민사부문에서, 부산대 로스쿨팀(이현준·김민수·박소민)은 형사부문에서 우승상인 '가인상'을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학생에게 주는 개인 최우수상은 이현주 전남대 로스쿨생(민사부문)과 김도희 한양대 로스쿨생(형사부문)에게 돌아갔다.

민사부문 2위를 차지한 충북대 로스쿨팀(장광덕·윤정은·이지수씨), 형사부문 2위인 한양대 로스쿨팀(조미소·김도혁·백지용씨)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400만원씩을 받았다.

법률신문 사장상에는 민사부문 전남대 로스쿨팀(김경언·국현아·이현주씨)과 형사부문 서강대 로스쿨팀(최강용·차승호·김의중씨)이 선정돼 상금 300만원씩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많은 팀을 진출시킨 로스쿨에게 돌아가는 소통상이 신설됐다. 본선에 11팀을 진출시킨 한양대 로스쿨이 수상했다.

민사부문에서 출제된 문제는 포털사이트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포털사이트가 사망한 사람의 이메일 계정과 이메일 내용을 상속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디지털 유품인 이메일 계정과 내용이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사부문 심사를 맡은 김용대(55·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아직 학생이어서 그런지 자기 주장의 근거를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며 "'생각합니다', '의문이 듭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밝히는 어투로 말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확실하게 자신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작전에 엮이게 되니, 자신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평했다.

형사부문에서는 집안에 침입한 절도범을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출제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방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인 논의를 묻는 사안이었다.

형사부문 평가자인 김상준(5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변론하면서 준비한 서류를 읽는 것보다는 재판부와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선과 손놀림이 자연스러운 사람에게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때 논지를 왜곡해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부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보다는 바로잡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유아독존식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발전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대(58기) 법원행정처장은 강형주(56기) 차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설득력 있는 변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조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제 몫을 다 할 수 있다"며 "늘 겸허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신문 전재)